

해외에너지 정책동향



쿠바, 고유가 대비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

- 쿠바는 유가 상승에 대비하여 조명을 위한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낮시간을 연장하여 전력 소비를 절약하는 방법인 서머타임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3월 8일 발표함.
- 쿠바는 2010년에 석유 및 천연가스를 약 400만 톤 생산하였는데, 그 중 대부분은 전력생산에 사용되었음.
 - 쿠바 공식집계에 따르면, 쿠바는 8만 b/d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, 이는 자국 소비량의 50%를 차지함.
- 쿠바 국영 석유회사 Cupet은 국제유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에너지절약 조치를 강화하고,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3월 9일에 언급함.
 - 북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의 소요사태로 인한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시점이라 유가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Cupet의 부회장 라파엘 텐레이로(Rafael Tenreiro)는 언급함.
 - 국내 원유생산량 확대를 위해 올해 Cupet은 외국회사들과 멕시코만에 위치한 쿠바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속적으로 탐사할 계획임, 쿠바의 잠재적 석유 매장량은 200억 배럴로 추정됨

(El Comercio, 2011.3.8; iStockAnalyst, 2011.3.9; El Nacional, 2011.3.9)

중국, 11차 5개년 계획 중 '1,000개 기업 에너지절약 목표' 초과 달성

-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가 지난 2006년 4월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제시한 '1,000개 기업 에너지절약 계획'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됨.
 - 이 계획 목표는 11차 5개년 기간 중 약 1억 TCE를 절약하

는 것으로, 잠정 통계에 따르면, 이 기간 중 1,000개 기업은 약 1.5억 TCE를 절약하였음.

※ TCE: 석탄환산톤(tons of coal equivalent)

- '1,000개 기업 에너지절약 계획'이란 에너지소비량이 연간 18만 TCE 이상의 약 천 개 기업에 대해 중국정부가 일괄적으로 에너지절약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임.
 - 해당 1,000개 기업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고, 전국 에너지 소비량의 1/3을 차지하고 있음.
- 조사 자료에 따르면, 11차 5개년 기간 중 1,000개 기업 중 일부 기업들의 에너지절약 능력은 이미 국제 수준에 도달함.
 - 산화알루미늄, 에틸렌, 수산화나트륨 등의 생산에 따른 에너지소비 지표가 30% 이상 감소
 - 원유, 정제, 전해알루미늄, 시멘트 생산에 따른 에너지소비 지표가 10% 이상 감소됨. 또한 발전용 석탄소비는 10%가 감소됨.
- 중국은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, '1,000개 기업 에너지절약 계획'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.
 - 첫째,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처는 실행방안을 발표하고, 프로젝트의 목표와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한 후 1,000개 기업 리스트를 발표함.
 - 둘째, 목표 책임제에 따른 심사 작업 실시: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지방정부는 1,000개 기업 에너지절약목표 책임계약을 체결하고, 실행 결과는 매년 심사를 통해 일률적으로 발표됨.
 - 셋째, 기업의 에너지사용량 분석 및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: 1,000개 기업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분석 및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. 각 지역 정부는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에너지사용량 분석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, 미비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.
 - 넷째, 에너지사용 현황 보고제도 실행: <핵심 기업의 에너지사용 상황 보고서 제도 실행방안>을 연구제정하여, 매년 에너지

지사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, 이를 취합하여 <1,000개 기업 에너지 사용 상황 공보>를 발간함.

- 다섯째, 업종 간 에너지효율 수준 비교작업 진행: <에너지소비 핵심기업의 에너지효율수준 대조작업 실행방안>을 발표하고, 철강, 화학공업, 시멘트 등 3개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 시범적인 비교작업을 진행, <에너지소비 핵심기업 에너지효율 수준 대조 가이드라인>편찬
- 여섯째, 천 개 기업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기술혁신사업 추진: 중국정부는 에너지기술 혁신사업 지원을 늘려 1,000개 기업의 통합 에너지소비지표가 큰 폭으로 낮아짐.
- 일곱째, 에너지절약 관리 강화: 95% 이상의 기업이 전문 에너지관리 조직을 신설, 에너지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계량기 등의 설비를 보강함.

(中國新聞網, 2011.3.14)

영국 런던시, 공공빌딩 에너지효율 향상시책 실시

● 소방서, 병원 및 사무실을 포함한 런던시의 공공빌딩을 대상으로 에너지혁신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며 지원금은 270만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
- 런던시장 Boris Johnson이 제안한 RE:FIT* Climate Change Programme은 절연제, 스마트미터, 태양광 패널의 설치 등을 통해 공공부문 빌딩의 에너지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.

-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European Investment Bank의 ELENA(European Local Energy Assistance) 기금에서 240만 파운드를 지원받고, Johnson 시장이 27만 파운드를 추가 지원할 예정임.

●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빌딩은 42개이며, 경찰서, 소방서, Transport for London 부지 그리고 University of London이 포함됨.

- 향후 200개의 빌딩이 더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임.

● 만약 런던의 모든 공공 빌딩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에너지효율을 증진시킨다면, 일 년에 5억 파운드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.

※ RE:FIT은 런던 공공기관의 탄소배출을 줄여 런던 전체의 탄소배출을 2025년까지 60%감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

(Business Green, 2011.3.17)

중국, 공업부문 에너지절약 및 CO₂배출감축목표 발표

● 중국 공업정보부는 12차 5개년 및 올해의 공업 에너지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위한 4가지 규제지표를 발표함.

- 중국은 2015년까지는 11차 5개년 말 대비 기관별 공업생산 당 에너지소비는 18%,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% 이상 및 물 사용량은 30% 감축하기로 하고, 공업 고체폐기물 통합사용률을 72%까지 제고하기로 함.

- 공업부문은 에너지소비 및 오염물배출의 핵심부문으로, 높은 목표 설정이 강한 구속력을 발휘하여 각 기업의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음.

● 이번 발표된 지표는 작년 말 전국 공업정보부 사업회의에서 확정된 목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.

- 작년 말 공업정보부 사업회의에서는 기관별 공업생산 당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1차 5개년 말보다 각각 16% 감축하고, 물 사용량을 25% 절감하는 한편, 공업 고체폐기물 통합사용률을 76%까지 제고하기로 1차 확정된 바 있음.

● 중국은 목표달성을 위해 산업구조의 조정, 기업의 기술발전 추진과 기업의 에너지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감축관리를 강화할 계획임.

● 자료에 따르면, 11차 5개년 기간 중, 중국 기관별 공업생산 당 에너지소비는 총 26% 향상되어 연평균 5.8%의 절감 비율을 보였으며, 이를 통해 7.5억 TCE를 절약함.

(新華網, 2011.3.28)